

“실타래처럼 얽힌 한·일 역사 문제 정부가 나서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이국언 대표

할머니들 응원하는 일본인 보고 시민운동 참여 미쓰비시重 상대 승소...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



언론중재위 ‘기사 삭제 청구권’ 토론회

온라인 기사 보도에 따른 권리침해 구제 방안 마련을 위한 진지한 토론이 벌어졌다.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박용상)는 지난 30일 라마다 플라자 광주 호텔에서 광주·전남 언론인 및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사삭제청구권과 잊혀질 권리’ 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 박용상 위원장은 이날 “오프라인 매체에서는 권리침해적 기사가 보도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잊혀졌지만, 인터넷 환경에서는 한번 게재되면 수시로 검색될 수 있고 무제한 복제·전파되어 널리 퍼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언론중재제도에 기사삭제청구권을 도입하는 방안이 대해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발제를 맡은 주정민 전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지난 2013년 대법원이 인정한 기사삭제청구권을 권리침해적 온라인 기사에 대한 피해구제수단의 하나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정토론에 나선 조경완 전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기사삭제청구권은 명백한 허위이거나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보도, 또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사실과 다르다고 드러난 보도 등에 대해 피해자가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장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 교수는 인터넷 시대의 피해구제를 위해 기사삭제청구권이 필요하며 입법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기아차 노조, 독립운동가 후손 돕기 성공

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 광주지회가 30일 독립운동가 후손 돕기 사업을 통해 모금한 1995만원을 민족문제연구소 광주지부에 전달했다.

이기근 광주지회장은 이날 전달식에서 “기아차 노조는 광주시민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광주 70주년을 맞아 올바른 역사를 바로 세우고,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독립운동가 후손 돕기에 나섰다”고 밝혔다.

기아차 노조는 지난달 어려운 처지 속에 살고 있는 독립운동가 후손과 위안부 등 일제강점기 피해자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전체 조합원 7300여명을 대상으로 모금 운동을 펼친 바 있다.

/임동룡기자exian@kwangju.co.kr

광주 북구 문화의 집 ‘무한상상실’ 사업 선정



광주시 북구(청장 송광운·사진)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주관한 ‘2015 무한상상실’ 공모사업에서 ‘북구 문화의 집’이 선정돼 상 사업비 2700만 원을 지원받게 됐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전국 과학관·도서관·동주민센터 등 76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공모사업에서 ▲사업추진 부합도 ▲발전계획 ▲프로그램 실효성 등 1·2차 평가를 거쳐 북구 등 모두 17곳을 최종 선정했다.

/이종희기자 golee@kwangju.co.kr

눈물이 마른 줄 알았다. 세하얀 머리칼과 깊게 파인 주름, 굵어 버린 허리를 펴는 것도 힘겨운 그들에게 더 이상 남은 눈물이 없을 것처럼 보였다. 오펜이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은 지난 24일 광주고등법원에서 한없이 눈물을 쏟았다. 한 맺힌 응어리를 토해내며 기쁨의 만세를 목청껏 불렀다.

광주고등법원은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에 상대로 낸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강제동원에 대한 위자료 배상 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2013년 1심에 이어 두 번째 승리다.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은 미쓰비시 측에 조속한 판결이행과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기를 바라고 있다.

판결이나 기자회견이 있을 때마다 할머니들과 함께하는 이가 있다. 바로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이국언(48) 공동대표다. 지난 2009년 3월, 시민모임이 출범할 때부터 현재까지 일본 기업과 정부를 상대로 벌이는 법정 다툼에서 이길 수 있다고 예상한 이들은 많지 않았다. 이 대표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를 움직인 건 ‘마음의 빛’ 때문이었다.

“지난 1999년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시작한 이래로 먼저 손을 내민 이들은 일본인들이었습니다. 비극적인 역사로 인해 아파하는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게 우리가 아니라 는 사실이 큰 충격이었습니다. 고통의 피해자



들을 위해 누군가 나서야 한다는 생각에 모든 걸 걸고 참여하게 됐습니다.”

지난 1941년 일본은 태평양전쟁을 일으키며 국가총동원법을 제정했다. 전쟁에 필요한 군수물자를 생산하기 위해 조선인 남성은 물론 여성들까지 ‘여자정신대’란 이름으로 동원됐다. 당시 일본은 12세 이상 40세 미만 조선인 여성들에게 공부를 하며 돈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고 꼬드겼다. 배고픔에 허덕이던 이들은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 하나



시민모임 회원들이 지난 24일 광주고등법원에서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후 만세를 외치며 기뻐하고 있다.

로 일본에 갔다. 1944년 광주·목포·나주 등에서 300여 명이 일본행 배에 올랐다. 그들은 기다린 건 참혹한 일상이었다. 단무지 한 쪽으로 끼니를 해결하고 일본인의 감시를 받으며 비행기 페인트 칠을 하는 등 중노동에 시달렸다. 하지만, 1945년 해방 이후 고국에 돌아올 때 약속대로 임금을 받기는 커녕 불구가 된 몸과 ‘위안부’라는 낙인만이 남았다.

인터넷엔 오마이뉴스에서 기자로 일하던 그는 지난 2003년 근로정신대문제를 처음 접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은 2005년 일본 나고야 지방재판소, 2007년 일본 나고야 고등재판소에서 모두 패했다. 지난 2008년 11월 일본 도쿄 최고재판소에서 기각되기까지 그들을 응원하는 한국인들은 거의 없었다. 오히려 일본 시민들이 만든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을 지원하는 모임’만이 할머니들을 응원했다.

일본 도쿄 최고재판소에서 기각 결정이 나고 모두가 끝났다고 생각한 순간 광주에서 시민 20여 명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이 출범했다. 취재기자로 할머니들을

접한 그는 근로정신대 문제가 자신의 운명이라고 여겼다. 그리고 지난 2008년, 언론서 생활을 접고 시민활동가가 됐다. 자발적으로 동참했지만 고독한 길이었다. 사무실을 구하지 못해 다른 시민단체 자리에 책상 하나만 놓고 활동을 시작했다. 상근활동가 1명이 할 수 있는 건 많지 않았다. 서명운동과 1인 시위가 전부였다. 그렇지만 의미있는 성과를 거뒀다. 2009년 2010년, 두 차례 서명운동에 16만 3000여 명이 참여했고, 미쓰비시 중공업 1인 시위 그리고 지난 24일 광주고등법원 항소심 승소가 지도 많은 시민들의 격려가 이어졌다.

이 대표는 시민모임이 오늘에 이른 것은 시민의 관심 덕분이라며 한껏 몸을 낮췄다. 대신, 시민모임의 목표를 밝힐 때는 굳건한 목소리였다.

“미쓰비시가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입니다. 반면 피해자 대부분이 고령이라 당장 내일도 기약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실타래처럼 얽히고설린 역사문제를 풀기 위해 이제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해양도시가스, U대회 현장 최종 점검

해양도시가스(사장 김명환)는 지난 29일, 광주유니버시아드대회 성공개최를 위해 그동안 추진해온 안전관리 대책들을 최종 점검했다. 김명환사장은 주요 시설 현황을 직접 방문하여 안전관리 상태를 확인했으며, 긴장을 늦추지 말고 총력을 다해 줄 것을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김명환 해양도시가스 사장(오른쪽 두번째)이 지난 29일 광주시 서구 광주U대회 선수촌 인근에 설치된 가스정압기를 살펴보고 있다. <해양도시가스 제공>

해양도시가스는 가스시설 테러에 의한 대회 진행의 차질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주요시설에 외부인 출입 감시센서를 설치하였으며, 차단밸브를 임의로 조작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추가 설치하는 등 보안 강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 행사기간에는 비상근무체계를 가동하고, 선수촌과 주경기장 주요시설에 대해서는 상주

안전관리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해양도시가스는 지난 3월부터 ‘안전관리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주요 행사장 반경 1km이내의 도시가스 시설에 대해 2차례 정밀안전점검을 하는 등 잠재적 위험을 제거하는 사고예방활동을 해왔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인사

◆관세청

◇과장급 전보 ▲광양세관장 김중용 ▲북포세관장 우현광 ▲군산세관장 임성근

◆한국농어촌공사

◇1급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비상계획실장 이상철 ▲해외기술처 칼파사사업추진단장 김문기 ▲성장전략실장 장중석 ▲정보화추진처장 신진균 ▲농어촌연구원 농공연구실장 박유일
◇2급 인사발령 ▲정보화추진처 IT총괄부장 황재준

◆해남군

◇시기관 승진 ▲주민복지과장 윤주연
◇사무관 승진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김현수 ▲북평면장 민경매
◇사무관 전보 ▲행정지원과장 김영중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지성 ▲계곡면장 김정심 ▲안전건설과장 김정호 ▲환경교통과장 안준승

◆장흥군

◇5급(사무관) 전보 ▲재무과장 장광준 승진 ▲의회전문위원 김한석 ▲대덕읍장 김장용 ▲용산면장 김승환 ▲부산면장 김승태

◇5급(승진리더과정 교육대상자) ▲보건소장(직대) 고영욱 ▲총무과 과학담당 김보희 ▲수도사업소 위생환경담당 김동욱 ▲문화관광과 관광개발담당 김현중

◇6급 전보 ▲기획담당 김주호 ▲감사담당 김백수 ▲규제개혁담당 이진현 ▲기업지원담당 손승현 ▲북함원원담당 최용길 ▲문화예술담당 김영운 ▲스포츠담당 방요한 ▲문화예술포럼담당 정익주 ▲환경관리담당 마영오 ▲산림보호담당 이경호
▲원예특작담당 노춘섭 ▲건설안전담당 오병찬 ▲로하스타운 정병식 ▲정충훈

◆영암군

◇승진 <4급> ▲주민복지실장 김성배 <5급> ▲수도사업소장 박준규
◇전보 <4급> ▲기획감사실장 박태홍 <5급> ▲재무과장 김종현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홍보교육과장 광경규 ▲환경보전과장 문정영 ▲영암읍장 박종태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군서면장 조영율

◆광주불교방송

◇전보 ▲광주 총괄국장 양봉모

◆TBN광주교통방송

▲광주교통방송 편성제작부장 고희석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 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47 FAX 062-222-4938. 222-4918

화측

- ▲차주열(전 대한전문건설협회 광주시회 회장 (한국도디자인 대표이사)·김재순씨 차남 국환군 임병만·김영욱씨 장녀 지은양=4일(토) 오전 11시 50분 라페스타 웨딩홀.
- ▲김재봉·김순이씨 차남 일호군 김정민·이순복씨 삼녀 수양양=4일(토) 낮 12시 30분 영광 영빈웨딩홀.
- ▲강대철·박현숙씨 장남 새현별군 김선우·유인숙씨 장녀 현희양=11일(토) 오후 2시 서울 범원종합청사예식장 2층 예식홀.
- ▲김대성·정금숙씨 장남 승훈군 공광식·이혜숙씨 차녀 미경양=12일(일) 낮 12시 30분 광주 아름다운예식장 1층 티파니홀.

동창회

- ▲광주 사대부중 제4회(회장 전성수) 동창모임=4일(토) 오후 7시 금남로 5가 목포식당 062-528-7875.
- ▲목포고 제5회 동창회(회장 조보규) 월례회=6일(일) 오후 6시 30분 금강산식

- 당 062-224-0808.
- ▲순천 매산고 동문 골프대회=9일(목) 광주CC, 회장 장진훈 010-3601-7701.

알림

- ▲화순 호사랑 노인복지센터 무료 방문 목욕=중풍이나 치매 등의 병으로 고통받는 화순 거주 노인들의 무료 방문 목욕 서비스를 원하시는 분 061-373-8865.
- ▲광주북구중독관리센터 무료상담=알코올 외에도 인터넷, 도박, 니코틴, 약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과 가족의 회복을 위해 무료 상담 및 정보제공, 교육 실시. 062-526-3370.
-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 장애차별 상담=국번 없이 1331, 우편 방문-광주시 동구 제봉로 광주은행 본점 6층.
- ▲한국실버복지회 생활법률 무료 상담=내용증명, 고소장, 호적정리, 가정 고민, 실버 결혼, 이발, 주례 서주기, 묘지리 파주기 등(실버에 한함) 062-365-8228.
- ▲비밀기 가정상담소 무료 상담=인터넷 및 전화 상담. 방문 상담은 예약제.

- 062-652-1366, 062-434-1366 www.gene-korea.com
- ▲광주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무료 상담=성폭력 피해자 상담, 의료 지원 및 법률지원 062-521-1365.
- ▲광주신세계희망장남감도서관 자유 놀이실 무료이용=건강한 놀이문화 조성 위한 장남감 대어 및 놀이공간 제공 12세 미만 아동은 누구나 이용 가능. 광주 북구 오치2동 광주종합사회복지관 3층 월요일 휴관. 화~금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 토요일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 062-264-0060.
- ▲전남사회복지협의회 법률서비스 ‘법률축대터’ 무료 상담=민사·형사 소송 이전 법률상담과 법교육, 조력기관 연계 등 1차 법률서비스 지원 월~금 오전 10시~오후 5시 061-285-1161.
-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 ▲광주북구정신건강증진센터=북구지역주민(성인, 아동)을 대상으로 무료 정신건강상담 및 교육진행. 만성정신장애인 대

상 가정 방문 및 주간재활프로그램 진행 062-267-5510.

▲광주자살예방센터(24시간 365일 운영)=자살! 숨기지 마세요! 주위사람과 대화하세요! 정신건강 및 자살위험 상담전화 1577-0199, 062-600-1908(담당자 조우상)

모집

- ▲(사)‘장애인먼저’ 실천광주운동본부 회원=자원봉사에 관심 있으신 분은 누구나 신청가능, 각종 장애인관련 행사 보조, 장애인 인식개선캠페인 등. 062-511-0030, 514-2929.
- ▲광주·전남불교신도회원=불교합창단 장단에 앞서 합창단원으로 활동할 불자를 모집. 노래를 좋아하는 불자(55세 이하) 무각사 내 불교회관 2층 법당 062-385-1336.
- ▲안전모니터봉사단원=재난안전사고 예방신고, 제보활동 안전부주의, 안전불감증 등 국민의식개선에 대한 홍보등의 활동을 할 자원봉사자를 모집(광주시민누구나 가능) (사)전국안전모니터봉사단 광주

광역시지회 062-514-2929.

▲남구 방림1동 새마을 협의회=자원봉사 남파 회원 수시 모집(자녀 장학금 혜택 있음) 010-9612-7695.

▲푸른길통동문화마을 회원=푸른길지킴이 활동을 함께하실 분은 누구나 지원가능(상시모집) (사)우리문화예술원 062-523-0474.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 발달 서비스 대상 아동=언어평가 및 언어교육을 필요한

다문화 가족 자녀(만 12세 이하) 언어발달 평가, 언어발달교육(주 2회·1회 40분) 상담(무료) 광주북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062-363-2963.

부음

▲강선홍씨 별세 봉구·경호·은영씨 부친상=발인 1일(수)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제5분향소 062-231-8905.

謹 삼가 故人의 冥福을 빕니다 弔	
201호 故손태희 님 (여/78세) 子/子婦 : 이상환/이영희, 심문/김국순, 상식/이.원, 영호/조영희 女/婿 : 이숙현/김민석, 숙길/이철준, 숙자/니문식 孫 : 이광림/김준, 김석, 김석기, 순영 • 발 인 : 7월 1일 • 장 지 : 영락공원 • 연락처 : 227-4381	402호 故김태숙 님 (여/88세) 子/子婦 : 김성환/신덕자 女/婿 : 오정민/조광희 孫 : 김성용/상훈 • 발 인 : 7월 1일 • 장 지 : 영락공원 • 연락처 : 227-4314
101호 故신충식 님 (남/56세) 子 : 신승호, 석환, 진오, 영호, 석원 女 : 신월연 未夫人 : 차옥진 • 발 인 : 7월 1일 • 장 지 : 영락공원 • 연락처 : 227-4385	102호 故오성철 님 (남/83세) 子/子婦 : 오진석/김나경, 민성 女/婿 : 오정민/조광희 • 발 인 : 7월 2일 • 장 지 : 강진 직전 성영 • 연락처 : 227-4386
孝 金호장례식장 http://www.mykumho.com	
문의 (062)227-4000	